

**통산부, 신정책방향모색...
신산업발전 민관협력회의 개최**

새로운 정책방안을 모색코자 통상산업부가 마련한 신산업발전 민관협력회의가 산업별로 지난 6월 24일부터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매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개최되고 있다.

정부·학계·업계 등 해당 산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토론하는 동 협력회의는 지난 6월 24일 '일반기기산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회가 실시되었다. 회의 주제는 산업별 총 25개로 12월 16일까지 계속될 계획이며, 항공기산업은 18번째로 10월 28일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다.

정부는 이번 민관협력대회를 통해, 산업별로 새로운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업체를 비롯한 학계, 연구계 등의 관계자들과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의결과는 회의다음날 화요일 한국경제신문 2면에 게재되고 있으며 YTN(연합TV)에서는 50분간 편집하여 녹화방영하고 있다. 아울러 25회분을 모아 단행본으로도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동 회의의 방청도 가능한데, 기자를 포함하여 약 30명 정도의 인원이 방청할 수 있다.

**생산사업 신고...
한국위터플랜트, 초경량기 생산**

통상산업부가 한국위터플랜트(주)(대표자 고종문)의 항공기 및 부품 생산사업신고를 수리했다. 이에따라 동 사는 새롭게 초경량 항공기 및 착륙장치, 동체, 날개 등 부품 제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동 사는 초경량항공기개발을 목표로하고 있는 회사로 특히 1~2인 승 자 이 로 콥 터 (Gyrocopter)개발에 중점을 두고 美 스포츠콥터(Sportcopter)사로부터 Vortex 2대를 올 9월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동 사가 생산사업신고를 필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항공기 생산업체는 기존의 한국경비행기

등을 포함하여 모두 9개업체로 늘어났다.

**테크노마트 점검회의 개최...
유치활동 독려**

통상산업부와 항공우주산업협회는 서울에어쇼 기간중 개최하게 될 제1회 국제항공우주테크노마트의 행사중간점검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유치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지난 6월 28일 통상산업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동 회의는 통산부 이원걸 항공우주공업과장을 비롯하여 학계·연구계·업계의 분야별 유치위원 등 총 23명이 참석하였으며 테크노마트 행사 준비상황과 유치실적,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항공우주공업과장은 테크노마트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회의장면

1,000부스 달성... 선진외국업체 대거참여

서울에어쇼에 참가하는 업체의 신청부스(Booth)가 1,000부스를 넘어섰다.

서울에어쇼 '96 공동운영본부는 7월 19일을 기준으로 국내 34개, 국외 108개 등 총 142개업체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7월 19일까지 참가를 희망한 142개 업체가 전시할 면적은 1,002부스로 보잉, 에어버스, 록히드마틴, 아에로스페이스, 수호이설계국 등 미국, 유럽, 러시아의 여러 항공기제작사, 제네럴 일렉트릭, 롤스로이스사 등 대형엔진업체, 휴즈, 로랄사 등의 우주산업업체 등 항공우주에 관련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모두 참가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공우주업체들도 대거 참가하여 선진 외국업체들과 어울어져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행사로서 자

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동운영본부 방문... 공군참모총장, 격려차

이광학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7월 9일 서울에어쇼 공동운영본부를 방문, 준비과정을 보고받고 근무중인 운영요원들을 격려했다.

李 총장은 '동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국제에어쇼이니 만큼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주최측인 공군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처음 하는 행사이니만큼 경험의 부재에서 오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국내 최초의 국제에어쇼를 내손으로 만든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기를 바란다'며 운영요원들을 격려했다.

공동운영본부는 공군, 항공우

주산업진흥협회, 기획사인 제일기획 등 민관 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말부터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서울에어쇼를 준비해 왔다.

서울에어쇼 공식지정업체 행사설명회 개최

서울에어쇼 공동운영본부는 에어쇼 행사 준비 및 운용에 참여할 21개 공식지정업체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행사설명회를 개최하고 서울에어쇼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였다.

항공우주산업협회 차정열 공동운영본부장을 비롯하여 호텔, 여행사 등 21개 공식지정업체들이 참석한 등 행사설명회에서는 업체간 상견례와 함께 서울에어쇼에서 필요한 준비사항을 공식업체에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각 분야별로 행사준비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토의하였다.



형태 및 상징적 의미

항공을 상징하는 비상하는 새의 모습에서 디자인 모티브를 찾았으며,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적 행사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국적 붓터치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엠블렘을 구성하는 4개의 면은 각각 종이비행기, 비행기의 동체, 양날개를 상징하며, 최대한으로 동감을 강조하였다. 21세기 세계 항공산업의 중심국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 항공산업의 비전은 하늘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르는 새의 모습으로 상징화시켰다.